

# 트럼프 경고 비웃듯 美 군수업체 북한과 거래

### 미 언론보도... 이름 공개 안해 유엔 금지 미사일 부품 납품

북한이 서방의 메이저 군수업체로부터 미사일 부품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BS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은 29일(현지시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인 휴 그리피스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 조사관들은 지난해 2월 한국이 회수한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4호' 추진로켓 잔해물 중 일부 부품에서 제조사 로고와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시험하는 자리였다고 CBS는 전했다.

이를 토대로 회수한 부품들의 원산지

###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서 움직임 포착



공급망을 추적한 결과 증압기라는 이름의 한 부품이 서방의 유명 기업 제품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피스는 인터뷰에서 "제조사는 대서양 건너편(유럽)의 메이저 방산업체로, 미국 방산시장에서도 최대 기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북한 로켓에서 발견된 증압기는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제조사는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지만, 유엔 조사가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CBS는 밝혔다. 그리피스는 증압기가 영국에서 대만까지 합법적으로 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로열 팀 코퍼레이션'이라는 한 그룹이 무역박람회에서 증압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압기는 민간 물자이면서도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dual-use) 품목이어서 추적·감시가 어렵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최근 이와 같은 이중용도 품목 32개를 북한과의 거래 금지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서방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조품이 북한으로 건너가는지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피스는 설명했다. 북한은 홍콩, 대만, 베이징,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기업가를 통해 자신

들의 존재를 숨기고 이런 부품들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데이비드 마틴 CBS 기자는 "그리피스는 이 모든 거래가 자신도 모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며 "그 이유를 몰았더니 답은 단순명료했다. 바로 탐욕,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일부 외국 기업은 북한으로 부품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도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메리 월시는 "북한이 가만 앉아서 혼자 힘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게 아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자원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해 2월 광명성 4호 발사 때 한국의 잔해물 수거를 방해하기 위해 로켓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사실도 이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자폭 장치에 이상이 생긴 덕분에 한국이 부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666 축천 황제의 재상 이소덕

이소덕(李昭德, ?~697)은 장안 출신으로 태종때 시어사를 지낸 이경우의 아들이다. 무축천이 세운 무주때 재상을 역임했는데 후리 내준신과의 갈등으로 처형되었다.

과거에 합격해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어사중승이 되었는데 잘못을 저질러 능수 현위로 좌천되었다가 병부시랑으로 복귀했다. 691년 낙양 사람 왕경지가 축천 황제의 조카 무승사를 황태자로 책봉해줄 것을 상소했다. 그는 황제를 만나 "지금 무씨가 천하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이씨를 후사로 삼으실지"라며 황태자 교체에 간청했다. 황제는 진노해 봉각시랑 이소덕에게 왕경지를 장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는 "이 도둑놈이 우리 황태자를 폐

계서는 만만년 하십시오"라는 글을 써 바쳤다. 그가 칼로 다 깎아낸 후 재판을 받도록 주청하였다.

황제의 신인이 깊어지니 그의 권력 남용이 자못 심해졌다. 공조참군 구음이 아래와 같이 준열한 상소를 올렸다. "개미구멍이 득을 무너뜨리고 바늘 끝이 기운을 덜어 없애며, 권력은 무거워서 한 번 떠나면 그것을 거두어 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장상과의 등주 역시 '석론'에서 수천자에 걸쳐 그의 전횡을 상세히 밝혔다. 황제가 남반 현위로 삼았다가 지방에 유배시켰다.

그는 권세를 휘두른 후리와 갈등을 빚었다. 693년 민간인은 비단을 비축할 수 없도록 금지령을 내렸는데 시어사 후사지가 몰래 비단을 비축한 사실을 조사해 장살시켰다. 이로 인해 후

### 황제 등에 업고 권력 누리다 공개 처형

립하고 무승사를 책립하기를 바라고 리 집단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태복소경 내준신이 그가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해 투옥되었다. 내준신 일파는 무씨 일족과 황제의 딸 태평공주 등을 반역을 소유했고 계시니 어찌하여 조카를 후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692년 은밀히 황제에게 고하였다. "위왕 무승사의 권세가 너무 심합니다." 황제가 "나의 조카라 심복으로 일을 맡겼다"고 답했다. 그가 말하기를 "조카와 고모가 가까운 것이 부자지간과 어떻습니까? 지금 무승사는 조카여서 친왕이 되었고, 또 재상이 되어 권력이 임금과 같게 되었으니, 신은 폐하께서 오랫동안 천위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황제가 놀라서 "짐은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해 8월 무승사를 정지에서 쏜대게 하고 이소덕을 중서시랑으로 삼았다. 이일로 무승사가 황제에게 그를 헐뜯자 황제는 "나는 이소덕을 임명하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힘을 것이니, 너는 거론치 마라."고 답하였다.

황제가 상서로운 것을 좋아해 어떤 자가 붉은색의 문양이 새겨진 흰 돌을 바치면서 "충성된 마음 때문입니다"고 말하였다. 그가 성을 내면서 "이 돌이 충성심이라면 다른 돌들은 모두 반역이란 말인가?" 양주 사람 호경이 거북이의 배에 붉은색의 옷으로 "천자

리 집단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태복소경 내준신이 그가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해 투옥되었다. 내준신 일파는 무씨 일족과 황제의 딸 태평공주 등을 반역을 소유했고 계시니 어찌하여 조카를 후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697년 6월 내준신과 이소덕이 같은 날 기시(棄市)되었다. 그는 결국 후리 집단을 처벌하는 도구로 처형된 것이다. 그가 죽은 것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내준신의 시신은 다투어 씹어 먹었다. 눈을 후버내고 얼굴을 벗겼으며 심장을 꺼냈다고 한다. 그는 무축천의 뜻을 잘 헤아린 신임을 얻어 재상 지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지나친 재기가 그의 명을 재촉했다고 볼 수 있다.

### 군사훈련·트럼프 향한 점검? 30분간 서울상공 누빈 美 국방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때 블랙호크 헬기로 10분이던 갈 거리를 30분간 비행하며 즐비한 고층 아파트군과 탱크 진지 등을 공중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매티스 장관의 DMZ 방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사에서 "바로 매티스 장관의 헬기 방문에서 북한의 위협 앞에 놓인 서울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매티스 장관은 블랙호크를 타고 30분 만에 도착했지만, 능히 10분이면 갈 수 있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라고 서울의 거리 위치상의 불리함을 새삼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취임 후 2번째이지만, 판문점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매티스 장관의 헬기는 "인구 밀집지에 점점이 박힌 언덕과 평지 상공을 선회하며 즐비한 고층 주거 단지들 위를 날고 탱크 진지들을 시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 중국 반대 속 대만 총통 하와이 방문

7박 8일 일정으로 남태평양 수교국들을 순방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가운데)이 28일(현지시간) 경유지인 하와이에 도착. 진주만에 있는 애리조나 기념관을 방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의 미국령 방문 계획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미국 국무부는 "차이 총통의 미국령 경유는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이며, 미국과 대만의 오랜 관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중국서 한국인 목사 수백 명 쫓겨나

중국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 종교인들을 대거 귀국시키는 한편 이들의 종교시설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작년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북3성 거주 한국인 목사·선교사 1000여 명 중 수백명을 귀국도록 했고, 그로 인해 지린(吉林)성을 중심으로 한국인 교회 다수가 문을 닫았다. 특히 지린성 장춘(長春)시에 있던 한국인 교회는 이날 초를 마지막으로 모두 폐쇄됐다.

중국 당국은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측은 북한과 가까운 동북지방에서 한국 종교인들이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시한 끝에 이들을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히 권고했다"며 "교회들도 자동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가 중국 내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한 '종교사무조례'의 내

년 2월 시행을 앞둔 선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이 사무조례는 불법적인 종교행사의 장소 제공자에 대해 2만~20만 위안(약 338만원~338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종교활동 주최자에 대해서는 10만~30만 위안(약 1694만원~5082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 등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사회안정', '극단주의 적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종교담당 행정기관이 관장하던 비인가 종교단체 업무를 맡던 행정기관에 위임해 더욱 철저히 추진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헬기로 판문점에 도착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방장관.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한,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